

[준기획] >> 3면
학위복 대여 사업 문제

[기획] >> 4면
등록금 인상

[사문] >> 8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학술] >> 9면
중국에서 온 인공지능 딥시크(Deepseek)

교육부 공고 제 2024 - 450 호

2025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논란 끝에 타결된 등록금 인상,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는?

2024년 12월 3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올해 전국 각지 대학에서 대대적으로 등록금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학교 등록금 역시 전년 대비 5% 인상됐다.

우리학교 AI교육원, 현직 글로벌 AI 개발자 초청 모의면접 워크숍 개최

박정운 우리학교 총장과 김낙현 AI(Artificial Intelligence)교육원 원장은 지난달 4일 강남구 신사동에서 '2025 SW 스펙업 컨설팅 (Software Spect-up Consulting) 모의면접 워크숍(Workshop)'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SW·AI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실무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면접 특강△모의 면접△자기소개서 컨설팅△SW 분야 현직자 특강을 함께 제공했다.

특히 '현직자 면접특강'에선 평소 만나기 어려운 글로벌 SW기업 현직 개발자가 △직무 이야기 △취업 및 면접 노하우△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강 내용은 실제 산업에서 활용되는 클라우드(Cloud) 기반 AI 서비스 구축과 머신러닝 프레임워크(Machine Learning Framework)의 활용사례 등 실무적인 내용을 제공했다. 또한 현직 AI 개발자와 취업전문가가 함께하는 모의 면접에선 SW·AI 프로젝트 경험

에 대한 질문과 알고리즘(Algorithm) 문제 해결 능력 등이 포함돼 학생들은 실전과 같은 현장감 있는 면접을 체험했다. 이후 1:1 피드백을 포함한 면접 컨설팅에 참여해 자신의 강점과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오세종 우리학교 AI교육원 교수는 "SW·AI 인재 양성에 적합한 융합 교육과 현직 AI 개발자의 머신러닝 특강 및 모의 면접을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며 "우리학교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Venture Startup Academy)는 △경합성 △산학협력 프로젝트△실무 중심 AI윤리△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반영 심화 워크숍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힘을 애정"이라고 밝혔다.

최소윤 기자 09soyoon@hufs.ac.kr

우리학교 GTEP사업단, 'CES 2025' 등 해외 전시회 참가 제18기 활동 성황리에 마무리

우리학교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Global Trade Experts incubating Program)(이하 GTEP사업단)이 제18기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GTEP사업단은 지난달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Las Vegas)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융합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에 참가했다.

이번 'CES 2025'에는 전 세계 166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했으며 올해 주제는 'Connect. Solve. Discover. DIVE IN'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통해 연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가능성을 발견하고 변화에 참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학교 GTEP사업단은 (주)May와 협업하여 CES에 참가했으며 △윤은서(동번역·영어 20)△홍지수(국제지역·그물 18) 학생이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참가 학생들은 "세계 3대 박람회 중 하나인 CES 2025에 참가해 혁신 기술의 변화를 목도하



▲CES 2025 참가 모습 (출처: 전략홍보팀)

고 미래의 가능성을 상상해 볼 수 있었다"며 "이번 경험을 통해 기술과 비즈니스의 융합을 고민하고 미래 진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참가 소감을 전했다.

이외에도 우리학교 GTEP사업단은 미국 마이애미(Miami)에서 열린 'Cosmoprof North America 2025'와 프랑스 파리(Paris)에서 열린 'IMACAS World Congress 2025'에 참가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학교 GTEP사업단은 이러한 국제적인 박람회와 행사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향후에도 국제적인 전시회 및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세계와 소통하는 무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이나경 기자 10leenagyeong@hufs.ac.kr

디지털·제약바이오 혁신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 환경을 강화하고, 안정적 의약품 공급으로 국민건강권 보장에 앞장 서겠습니다.

명희준 우리학교 생명공학과 교수, 차세대 유망 항생제 전임상 과정 수행 논문 국제저명학술지 게재



▲명희준 우리학교 교수

명희준 우리학교 생명공학과 교수(이하 명 교수)가 차세대 유망 항생제로 주목받고 있는 엔도라이신(Endolysin)을 발굴해 전임상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가

*IF(Impact Factor) 상위 10% 저널인 국제생물고분자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Biological Macromolecules)에 지난 1월 27일 게재됐다.

논문의 제목은 '그램음성 병원균을 표적으로 하는 엔지니어링된 엔도라이신의 시험관 내 및 생체 내 효능 연구(In vitro and in vivo efficacy studies of an engineered endolysin targeting Gram-negative pathogens)'이며 같은 과 소속인 우리학교 송미령 교수도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현재 항생제 내성균의 급속한 확산과 신규 항생제 개발의 정체로 인해 항생제 내성균 감염에 의한 사망률이 빠르

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조용한 팬데믹(Silent Pandemic)'이라 부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다제내성균은 어떤 항생제로도 치료되지 않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테리오파지(Bacteriophage)에서 유래한 엔도라이신은 신규 항생제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다룬 엔도라이신은 2024년 식약처로부터 임상 1상 시험 승인을 받은 상태로 그람음성균(Gram-negative bacteria)을 타겟으로 한 엔도라이신은 개발 난이도가 매우 높은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연구팀은 이 후보 물질이 세계 최초로 임상시험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연구에는 우리 학교 명 교수 연구팀 외에도 △강원대(쥘리아센텍△부산대△아주대 연구진이 참여했으며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명 교수는 2019년 박테리오파지를 활용한 신약 개발을 목표로 쥘리아센텍을 설립하고 시리즈 A 투자에서 97억 원을 유치한 바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기관과의 공동 연구와 신약 개발 협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쥘리아센텍은 △미국△일본△중국△한국△EU 등에서 특허를 취득하고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기술이전 협의를 활발히 진행하며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신규 항생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IF(Impact Factor): 어떤 저널이 인용된 횟수를 분석하여 얼마나 중요한 저널인지를 알려주는 숫자

이나경 기자 10leenagyong@hufs.ac.kr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2024학년도 동계 초집중! 취업캠프' 개최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지난 1월 23일~24일 1박 2일간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YBM연수원에서 '2024학년도 HUFs 동계 초집중! 취업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채용 트렌드(Trend)와 전형 방식에 대비하고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수정예 집중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1일 차 프로그램은 △국내외 채용 동향 및 준비 전략 특강△직무별 입사지원서 클리닉△점차 지도 등으로 진행됐고 2일 차엔 △면접 대비 1분 자기소개 특강△최신 면접 경향 분석 특강△현직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실전 모의 면접 및 피드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실전 모의 면접에선 학생들이 현직 인사담당자들로부터 직접 피드백을 받아 취업 준비 과정에서 자신의 강점과 보완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취업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주변에 추천해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이었다"며 "특히 모



▲한국외대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2024학년도 동계 초집중! 취업캠프' 개최 (출처: 전략홍보팀)

의 면접은 현직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미숙

한 고민을 가진 또래 친구들을 만나 취업 방향성을 설정하고 부족한 부분과 보완할 점을 알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고 덧붙였다.

이지연 서울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은 "대학 일자리플러스본부는 학생들이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발판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나경 기자 10leenagyong@hufs.ac.kr

우리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2025년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정책 세미나' 개최



▲한국외대, '2025년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정책 세미나' 개최 (출처: 전략홍보팀)

지난 1월 20일 우리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이하 특교원)은 우리학교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엔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단국대·청운대 컨소시엄△부산외대△우리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참여 학과 책임교수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단국대학교 특수외국어사업담당 백용운 교수(이하 백 교수)는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의 성과 및 발전 방안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백 교수는 1단계(2017-2021)와 2단계(2022-2026) 실적 지표를 분석해 사업 성과를 진단하며 "2025년을 사업 혁신 및 성과 공유 확산의 해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3단계 사업 진입을 앞두고 특수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간 연합

이러한 접근이 지속 가능한 성과 확산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을 덧붙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국립국제교육원 및 특수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관계자들은 2단계 사업 운영 성과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3단계 사업 정책 연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은구 특교원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특수외국어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이번 세미나가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과 참여 기관 간 단단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나경 기자 10leenagyong@hufs.ac.kr

우리학교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학과, 유누스엠레 튀르키예 문화원 공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박정은 우리학교 총장과 이난아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학과 학과장은 지난달 14일 서울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및 교수-학생 교류회를 개최했다.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학과와 유누스엠레(Yunus Emre) 튀르키예 문화원(이하 문화원)이 공동 주관하고 튀르키예 정부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꿈과 희망의 첫 만남'이란 주제로 △로브산 이 브라힘오프(Rovshan Ibrahimov)교수△에르주멘트 카야(Ercument Kaya·이하 카야) 원장△에르탄 고크멘(Ertan Gokmen) 교수△이난아 교수△오종진 교수와 △문화원 교육 프로그램△비교과 프로그램△학과 교육과정을 소개했다. 특히 신입생들에게 학과의 장점과 글로벌(Global)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과의 교류를 통한 학문과 실무적 성장의 기회를 강조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카야 원장은 학생 및 교수를 문화원 본원으로 초대하며 우리학교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



▲우리학교 유누스엠레 튀르키예 문화원 공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출처: 전략홍보팀)

하고 다양한 장학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신입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다과△입학 축하 기념품△전통 음식을 제공하며 앞으로의 학업과 학과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학과 교수진 역시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꿈과 희망을 품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교육△인턴십(Internship)△취업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학교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학과와 발전 가능성과 비전(Vision)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학과는 해당 국제 사회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과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며 학생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소윤 기자 09soyoon@hufs.ac.kr

학위복 대여 사업 문제, 모두가 행복한 졸업을 위해선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우리학교 학위복 대여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다. 학위복 대여 사업은 우리학교 양캠 총학생회(이하 총학) 측에서 학위복을 구매해 진행하는 졸업 사업의 일환이다.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경우 촉박한 학위복 대

여 시간으로 인해 학위복을 입고 학위수여식에 참석할 수 없었으며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역시 신청 당시 학위복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이 난항을 겪었다. 이에 본 기사에선 △학위복 대여 사업 문제의 현황과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학위복 대여 사업 문제의 현황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서 지난달 졸업식 기간에 진행된 학위복 대여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설캠과 글캠엔 학위복 수량 문제가 동시에 제기됐다. 글캠에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된 학위복 대여 신청이 초를 다룰 정도로 치열했다. 에타 글캠 자유게시판에선 “학위복 빌리는 것도 이렇게 어렵다”며 “치수가 없어서 시간을 바꿨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또한 에타 설캠 자유게시판에선 “졸업식 대표 수여자로 학위증을 받는데 학위복을 대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자신을 영어 대학 졸업자라고 밝힌 A 씨는 “공지를 조금 늦게 봤더니 학위수여식 당일인 14일에 학위복이 모두 마감돼 16일에만 학위복을 빌릴 수 있었다”며 “부모님에게 한 번뿐인 학위수여식 날 학위복을 입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아쉬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또한 A 씨는 “학생들이 수량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라도 있었으면 불만이 적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글캠에선 학위복 대여 시간 문제가 제기됐다. 글캠 총학생회 비대위 ‘오뉴월’은 지난달 4일 비대위 인스타그램(Instagram)에 학위복 대여 신청 안내 게시물을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14일 학위수여식에서의 학위복 대여는 △오전 9시~오후 12시△오후 12시 30분~오후 3시 30분△오후 4시~오후 5시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한편 글캠 학사종합지원센터는 지난달 4일 공고에서 오후 1시 40분까지 학위복을 입고 학위수여식에 입장하란 게시물을 게재했다. 학위복을 대여한 1타임 학생들은 오후 12시까지 학위복을 반납해야 했기 때문에 학위복을 입고 학위수여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 3타임 학생들 역시 오후 4시에 학위복을 대여할 수 있어 학위수여식에 학위복을 입고 참석할 수 없었다. 글캠 통변역대학 졸업자 B 씨는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한 번뿐인 졸업식 때 학위복도 못 입고 졸업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평상복을 입고 학위

수여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에 학교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학위복 대여 사업 문제의 원인

학위복 대여 사업 문제의 원인으로 학위복의 전체 수량이 부족하단 점이 지적된다. 지난달 11일 글캠 비대위의 링크트리(Linktree)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4~15일 오후 12시 30분~오후 3시 30분까지 대여 확정된 학위복의 수량은 197벌에 불과했다. 치수별론 △L 62벌△M 57벌△S 52벌△XL 17벌△XS 9벌로 확인됐다. 글캠의 경우 GBT학부 및 융합인재학부 등 한 학년에 100명이 넘는 학생이 있음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조준형(통번역·아랍어 18) 부비상대책위원장(이하 조 부비대위)은 “글캠 비대위에서 확보한 학위복 수량은 300벌 내외다”며 “예산 전기 졸업자가 약 1,200명 전후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정 치수의 학위복에 수량이 집중될 가능성도 높음에도 이에 대한 확실한 대비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설캠 총학 측은 “S 치수가 학위수여식 당일에 가장 인기가 많았다”며 “S 치수의 경우 1~2시간 만에 대여 신청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S 치수의 경우 신장 155~165cm에 해당하는 치수다. 20대 여성의 평균 신장이 161.83cm이고 우리학교 재학생 중 54.2%가 여성이란 점을 고려하면 S 치수에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언급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위복 추가 제작 및 학위복 추가 구매 사업을 위

한 졸업생들의 모금 활동이 필요한 의견도 존재한다. 조 부비대위장은 “졸업 예정자들의 모금을 통한 학위복 추가 구매 사업을 실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학위복 추가 구매 사업에 대해 설캠 총학 측은 “매년 부족한 수량에 2년 전부터 학교에서 제공받은 예산을 투입해 새로 제작을 의뢰 중이다”며 “이번 해까지 약 200벌을 추가 제작해 학위복 대여 사업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학위복 구매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 업체와 연계한 학위복 대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12월이나 1월 중으로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필요한 수량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외부 업체에서 대량 대여를 통해 충분히 학위복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박사 학위복 대여 사업에 있어 학위복 대여 업체 ‘춘추사와 연계해 학생이 원하는 수요만큼 학위복을 직접 대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인하대학교 역시 △춘추사△학위사△한국기운사 세 업체와 학위복 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위복 대여 신청 기간 동안 필요한 학위복 수량을 조사한 후 필요한 만큼 업체에서 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학위복 대여 사업에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학위복 수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설캠 총학 측은 “학위복 수요보다 공급이 적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현 총학 및 후대 총학에서 지속적으로 학위복을 늘려 수요에 맞는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처음 품었던 설문을 졸업까지 간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은희 기자 10kimeunhui@hufs.ac.kr

후속보도

자치 공간 개선 노력, 학생 활동 증진 유지를 위해선

지난 1086호 기획 기사에선 교내 자치 공간 문제를 다뤘다. 공간 확충을 통해 자치 공간을 개선할 가능성이 커진 반면 자치 공간 운영시간 규제 및 냉난방기

운영시간 제한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자치 공간의 문제 및 개선 현황△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자치 공간의 문제 및 개선 현황

우리학교는 학생 자치를 위해 △교방△동아리방(이하 동방)△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총학생회(이하 총학)실 등 다양한 자치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의 경우 △교수학습개발원(이하 교개발)△국제학사△사회과학관△지하복합시설 등에 자치 공간이 마련돼 있다.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경우 학생회관에 총학실과 동방들이 위치해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학생들이 자치 공간 부족 문제를 겪었으나 개선의 여지가 생겼다.

과거 설캠 총학 측은 행정지원처와의 면담 당시 자치 공간의 부족 문제를 제기한 적 있다. 일례로 설캠 총학 산하 특별기구인 ‘휴스포츠(HUFSports)’는 지난 2022년까지 배정받은 자치 공간이 없어 설캠 동연에서 보유하고 있던 공실을 대여해 이용해야 했다. 이러한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간 활용도를 개선해 추가적인 학내 공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인문과학관 1층 우체국 앞 공간에 ‘미디어 콘텐츠 제작 부스’가 설치돼 학생 자치 공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당 공간은 교육혁신원의 주관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우리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영상 제작 및 녹음이 가능해 부족한 자치 공간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우리학교 중앙 뮤지컬(Musical) 동아리 ‘라운’ 소속 김서연(상경·경제 24) 씨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 부스가 교내 학생이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부족한 자치 공간을 보완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공간 부족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반면 자치 공간 운영시간은 개선된 점도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설캠 국제학사 출입문 개방 시간은 오전 7시~오후 8시까지로 제한돼 있지만 시설관리팀에 따르면 학생증 인식 후 출입해 자율적 이용이 가능하다. 글캠 학생회관에 위치한 자치 공간 역시 글캠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4시간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설캠 지하복합공간에 위치한 자치 공간의 경우 오전 9시~오후 11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회과학관 자치 공간의 경우 오전 7시~오후 8시까지만 일반 학생에 한해 개방 중이다.

비용 및 안전 문제에 따른 냉난방기 운영 시간 규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시설관리팀이 게재한 교내 건물별 난방 기준에 따르면 △국제학사△사회과학관△지하복합시설은 학기 종과 방학 기간을 통틀어 오전 10시~오후 9시까지 난방 기기가 운용되고 있다. 교개발에 위치한 자치 공간의 경우에도 오전 7시 30분~오전 9시 및 오후 1시~오후 2시 동안만 난방 기기가 운용된다. 냉방기기 역시 국제학사 동방은 오전 10시~오후 9시까지 운행하고 교개발과 사회과학관은 오전 8시~오후 6시까지 운행한다. 즉 아직도 냉난방기 운영 시간이 자치 공간 개방 시간과 비교해 턱없이 짧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자치 공간은 주말엔 냉난방 기기를 운용하지 않고 있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캠 중앙 합창 동아리 ‘외대 합창단’ 소속 김도현(아시아·마인어 24) 씨는 “동아리 특성상 주말에도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냉난방기가 작동하지 않아 불편을 겪는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자치 공간 운영시간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안전을 담보한 상태에서의 24시간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공간 분리를 통해 출입 통제를 따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일례로 우리학교 도서관은 운영 시간 외에는 자료실 등의 출입을 통제하지만 열람실의 경우엔 모바일(Mobile) 학생증으로 본인 인증 후 열람실 출입이 가능하다. 이처럼 건물 전체에 출입 통제하기보다 통제할 공간과 출입 가능한 자치 공간을 분리해 운영 시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무인 경비 시스템(System)을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고려대학교(이하 고려대)의 경우 사범대 학생회 측과 평생교육원이 협의해 모든 자치 공간에 경비 시스템 ‘세콤(Secom)’을 설치해 자치 공간의 24시간 개방을 보장하고 있다. 고대신문에 따르면 고려대 평생 교육원 측은 “음주나 취침 금지가 명시된 해당 수칙을 허용하는 범위에서 24시간 개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냉난방기기 운영 시간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주)한국동서발전은 호서대학교(이하 호서대) 아산·천안캠퍼스 및 6개 대학과 연계해 ‘에너지 관리 솔루션(Solution)’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호서대의 경우 월평균 전기 사용량의 약 10%를 절감해 10년의 운영 기간 동안 총 15억 원의 전기 요금을 절감했다.

나이가 자치 공간 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리모델링(Remodeling)을 진행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우리학교 도서관의 경우 지난 2020년 ‘그린(Green) 리모델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지속 가능한 도서관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우리학교 도서관은 컴퓨터 유체 역학 해석을 통해 냉난방 설비를 최적화하고 있다. 또 시스템 에어컨의 냉매 배관을 2개 구역으로 나눠 냉난방 효율을 높이는 방식을 채택해 에너지 비용을 30% 이상 절감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서관에 설치된 태양광 에너지 전지판을 통해 전기세를 감축하고 있다.

학생 활동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선 자치 공간 개선을 위한 꾸준한 관심이 동반돼야 한다. 보다 나은 자치 공간을 위해 지속적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은희 기자 10kimeunhui@hufs.ac.kr

논란 끝에 타결된 등록금 인상,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는?

올해부터 우리학교 등록금이 전년 대비 5% 인상됐다. 십수 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를 깨고 전국 각지 대학에서 대대적으로 등록금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학교 역시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이하 총학)에선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열리는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본관 앞에서 파켓팅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반대했으나 결국 등록금 5%

가 인상됐다. 이에 따라 등록금 인상이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더 나은 학교생활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등록금 인상의 배경 및 현황 △논란 끝에 타결된 등록금 인상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 보자.

◆등록금 인상 배경 및 현황

지난 21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가 밝힌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90개교 중 131개교(68.9%)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이중 사립대학은 총 151개교로 등록금이 인상된 대학은 120개교(79.5%)에 달한다. 사실상 4곳 중 3곳은 등록금을 올린 셈이다.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도 전체 39개교의 28.2%인 11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으며 올해 법정 인상 상한은 5.49%이다. 실제로 2025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한 131개교의 인상률을 보면 4.00%~4.99% 수준에서 인상한 대학이 57개교(4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0%~5.49% 수준에서 인상한 대학이 54개교(41.0%)로 나타났다.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인 5.49%까지 인상한 대학도 9개교로 사립 6개교와 국공립 3개교로 나타났다. 서울의 주요 대학에선 스키어대학교 △건국대학교 및 경희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가 기존 등록금에서 각각 △5.0% △5.1% △5.3%의 인상을 결정했고 우리학교 역시 전년 대비 5%를 인상했다.

이처럼 대다수의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단행한 배경엔 누적된 재정난이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십수 년간 이어진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로 인한 재정난을 견디지 못하고 여러 대학들이 대거 등록금 인상에 나선 것이다. 우리학교 역시 2008년 마지막 등록금 인상을 이례로 17년간 동결해 왔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예산조정팀은 “등록금이 동결될 경우 교수 및 직원들의 인간비도 함께 동결되며 교원 유치 및 초빙 부분에 있어서도 우수 교원 채용이 매우 힘들다”라고 전했다. 또한 “△경비 △미화 △수도 △전기 등의 고정비용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재정적 어려움을 밝혔다.

◆논란 끝에 타결된 등록금 인상

우선 등록금 인상은 국가장학금 제 II 유형(이하 국장 II)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정부는 2009년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권고했고 2012년부터 등록금 인상 대학을 국장 II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하지만 올해 전국 대학의 약 65%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등록금을 올린 학교의 학생들은 국장 II 유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실정이다. 대학들은 등록금 결정 과정에서 인상분으로 자체 장학금을 확충해 이를 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장 II 유형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곳이 상당수이다. 이에 장학금 지원이 끊긴 학생들 입장에서 갑작스런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상황이다.

2024학년도 기준 우리학교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지원받는 국장 II 유형 지원액은 약 22억 원이다. 해당 금액 22억 원만큼을 2025학년도 교내 장학금으로 추가 편성해 학생들이 장학금 감액으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게 하며 2026학년도 이후에도 추가 22억 원은 감액 없이 유지하고자 함에 따라 학생들이 국장 II 유형을 지원받지 못한 것에 따른 손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학교 측의 방침이다. 또한 “국장 II 지원금은 2026학년도부터 5년간 점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에 2026학년도부터 학생들이 추가로 국장 II 지원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어 학생 장학금 수혜율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 측과 학생 간의 지속적 협상을 통한 합의점 도출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총학은 “학교 측으로부터 등록금 관련 논의에 대한 통지를 신속하게 전달받았기에 소통의 부재는 없었다”며 “다만 소통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가 존재해 원만한 합의점에 다다르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총학은 “학생과 학교가 겨룰 수 있는 모든 전반적인 안에 대한 자문을 상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타 대학에 비해 인상 논의가 비교적 급박하게 진행됐던 점을 지적했다. 등록금 관련 △동결(안) △인상(안) △학생과 학교 타협(안) 등 모든 안에 대한 자문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학생들이 등심위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더라도 결국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의견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예산조정팀은 “학생들 입장에서 더 원활한 타협이 이뤄지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던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번 해 등록금 산정 기간이 촉박해 짧은 기간 내에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했던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학교의 등록금 결정 과정은 매년 12월 말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등록금 인상을 지침서가 고지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후 1월 말에 개최되는 법인이사회 본예산 심의 회의 전에 본예산에 대한 등심위 심의 및 대학평의원회 자문 확정 필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사실상 1월 둘째 주 내에 등록금액이 확정되어야만 본예산 편성이 가능한 것이다. 즉 학교 측에서도 짧은 기간 안에 학생들과 4회 정도의 만남을 가지며 최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던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낮은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법인전입금’이란 학교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하는데 이는 대학의 총수입액 중 법인의 재정 기여도를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설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지난 1월 14일 성명을 내며 “등록금 의존율은 62.5%인데 법인의 재정 기여도는 매우 낮다”며 다양한 수입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법인전입금 비율이 높을수록 대학 운영 수입이 다양해지고 등록금 의존율이 낮아지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교의 경우 대학의 재원 중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전입금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이에 따라 등록금 의존율 또한 함께 높아짐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 우리학교의 법인은 동원육영회이다. 법정부담금에 대한 법조문인 대학설립·운영규정 제8조 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가 설립 및

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현재 우리학교 법인은 이를 충족하고 있는 상태로 법적 문제의 소지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대학 법인의 주요 수익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인데 이는 경제 의존도가 높아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예산지원팀은 “법인 측이 수익사업을 다각화하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학교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도 밝혔다. 즉 학교 측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을 전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인상된 등록금이 어디에 쓰일 것인지에 대한 향후 계획에도 모두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총학에선 지난 1월 12일 ~ 14일까지 ‘2025년도 본교 등록금 인상 계획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본예산(안)에 대한 의견 수렴의 결과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곳은 △장학금 확충 △공간 확충 △낙후시설 개선 △엘리베이터 설치 △고시반 확충 △전임교원 확충 및 강의 증설 △학내 체육시설 개선 △도서관 24시 개방 △와이파이 네트워크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예산조정팀은 주로 양 캠퍼스 시설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설캠의 경우 국제관 열람실 리모델링과 통역 장비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고 사회과학관의 경우 지하 방수공사가 확정된 상황이다. 추가로 책걸상 교체 역시 확정 사안으로 노후화된 책걸상 기준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그 외 교수학습개발센터 EHP(생난방기) 교체 공사 및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확정된 상황이다. 글캠의 경우 △공학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교양관 화장실 개보수 공사 △무선 네트워크 개선 공사 △자연과학관 실험 용수 배관 교체 및 환경개선 공사가 확정됐다.

등록금 인상은 학생과 학교 양측 모두가 민감한 문제인 만큼 최종 결정까지 여러 과정을 겪었다. 현재는 학내 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우선적으로 계획되고 있지만 향후 교원 확충과 같은 나머지 사항들 역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총학 측에선 등록금이 학생 복지와 교육 환경 개선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꾸준히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번 등록금 인상이 학내 전반적인 교육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라며 학생과 학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학생 복지를 위한 제휴 사업,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

현재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는 다양한 업체와 제휴를 맺어 학생들에게 할인과 편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으나 동시에 △동종 업체 간의 중복 제휴△적은 수익 창출 효과

△홍보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제휴 시스템 및 현황 △제휴업체 문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제휴 시스템 및 현황

우리학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은 학생들에게 할인과 편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체와 제휴를 맺고 있다. 이는 주로 단과대 학생회 및 총학생회의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교통수단△병원△서점△식당△카페△학원과 같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Service)가 주요 대상이다. △가게 방문 시 학생증 제시△단체 할인 플랫폼 소속(Sosok) 이용△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내 예약 및 홍보를 통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거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에선 지난해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인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가 △방은눈안과의원△세이프닥(SafeDoc)△스윙(Swing)△한국인터넷교육방송 등과 제휴를 맺은 바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학복위가 해소됨에 따라 설캠 총학생회(이하 설캠 총학)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됐다. 설캠 총학은 “공약으로 대외 협력국을 신설하고 더 많은 제휴와 프로모션을 제공하겠다”며 “올해는 시대인재 학원과의 제휴를 통해 교내에서 법학직성시험 모의고사를 볼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제휴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설캠 단과대 학생회들의 경우 △글사랑△샤로스톤(Sharo Stone)△알촌△아일랜드비(Island B)와 같이 접근성이 용이한 학교 주변 상권과 제휴를 맺어 각 단과대 학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지난해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동유럽대학 학생회의 경우 에듀윌(Eduwill) 토익(TOEIC)과 제휴를 맺었으며 현재 글캠 총학생회(이하 글캠 총학)는 △남산스마일안과△이백장돈까스△에버랜드(Everland) △YBM 등과 제휴를 맺고 있다.

◆제휴업체 문제

그러나 제휴 사업이 항상 효과적인 것만은 아니다. 외대학보에서 우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휴 복지 사업을 이용하며 불편했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란 질문의 응답으로 △이용 가능 매장 부족△적은 혜택△학생들의 의견 수렴 부족△홍보 부족으로 인한 정보 부족 등의 응답이 돌아왔다.

취재 결과 전반적으로 제휴 사업의 홍보 부족에 대한 제휴업체 운영자 역시 동감했다. 글캠 인근 식당인 이백장 돈까스 사장 A 씨는 “홍보 목적으로 제휴를 맺지만 실제로 큰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제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없다”고 답변했다. 설캠 근처 식당 주인 B 씨는 “학생들이 열심히 제휴를 맺지만 학생들에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아쉽다”며 “제휴를 미리 알고 온다기보단 실제로 가게를 방문 후 제휴 포스터를 보고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설캠 정문 근처 카페 아일랜드비의 사장 또한 “학생들이 제휴를 인지하고 카페에 방문하는 학생들은 1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홍보 부족의 원인으로는 홍보 주체의 SNS 계정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정보 전달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 글캠의 경우 매년 총학 SNS 계정이 새로 개설돼 신입생들도 제휴 혜택에 대한 정보를 이전의



▲아연대 제휴사업 리스트, 글캠 제휴사업 SNS, 설캠학생회 제휴계정, 중대 단독 제휴 안내

계정에서 찾기 어렵고 매년 새로운 계정을 팔로우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제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불규칙적인 홍보 주기 역시 또 다른 원인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제휴 혜택을 알리는 것이 아닌 학기 초나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9월 등 특정 시점에만 홍보가 집중되는 것이다.

혜택의 체감도가 낮다는 점도 제휴사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우리학교 학생인 C 씨의 경우 “안과에서 제공하는 수술 비용 할인 혜택의 경우 그 금액이 크다보니 ‘혜택’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도움을 받는 느낌이 드는 반면 근처 식당을 대상으로 한 제휴는 그 혜택이 비교적 작을뿐더러 요구 조건도 많아 혜택 체감이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설캠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와 제휴 중인 우리학교 근처 모 고깃집에 관해선 △동연 홈페이지에서 회원 인증 확인 제시△리뷰 작성△2인 이상 방문과 같은 요건들을 모두 충

족해야만 사이트 메뉴 한 개와 음료 한 개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일반 리뷰 이벤트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또한, 제휴 업체 선정 기준이 공개돼 있지 않다는 것 역시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남우현(사회·정외 22) 씨는 “제휴 업체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안내가 부족하다”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지와 가격 혜택이 충분한지 등 구체적인 선정 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투명하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이에 대해 설캠 총학은 “의료 제휴의 경우 의료 사고 전적을 확인해 보거나 병원 의료진과 의료 기구 품질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학우분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한다”고 언급하며 판단 근거가 존재함을 밝혔다.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학교 글캠 제휴 사업은 인근 식당과 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타대학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제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수의 대학에선 대학생과 취준생을 위한 자기소개서 및 면접 컨설팅(Consulting)과 취업 멘토링(Mentoring) 등의 커리어 성장 플랫폼(Platform)인 코멘토(Comento)와 제휴해 취업을 돕는 제휴 사업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건국대학교(이하 건대)의 경우 대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셀프 사진관 ‘건대 포토이즘스튜디오(Photoism studio)’와 제휴하는 등 재학생들의 일상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우리학교도 이렇듯 다양한 분야의 제휴 사업을 도입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학생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설문조사 및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필요한 제휴를 파악 및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학교 일본대학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제16대 일본대학 학생회 ‘도모’는 제휴사업 선정에 앞서 미리 수요조사를 진행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설캠 총학 측은 “제휴를 이용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아직 따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며 “좋은 방향인 거 같아 진행 의사가 존재한다”고 언급하면서 학생들 의견 반영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제휴 사업에 관한 홍보 또한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다양한 홍보 경로 확보△오프라인 홍보 행사 개최△주기적인 게시물 발행△학교 공식 SNS 계정 내 별도 제휴 사업 계정 신설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제휴 사업이 단순한 명목상의 혜택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

최소윤 기자 09soyoon@hufs.ac.kr
현재우 기자 10jaewoo@hufs.ac.kr

디지털융합인재를 양성하는 GMC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2025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특별·일반 전형)

1. 2025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 전형 일정	일반 전형	장소
원서접수	2025.3.24.(월) ~ 4.14.(월)	2025.4.28.(월) ~ 5.14.(수)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서류제출	2025.3.24.(월) ~ 4.14.(월)	2025.4.28.(월) ~ 5.14.(수)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대학원 111호)
면접시간 공지	2025.4.23.(수) 15:00	2025.5.21.(수) 15:00	우편배출은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유로함
면접전형	2025.4.26.(토) 10:00	2025.5.24.(토) 10:00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합격자발표	2025.5.9.(금) 15:00	2025.6.5.(목) 15:00	홈페이지에서 확인
합격자등록	2025.5.12.(월) ~ 5.14.(수)	2025.6.9.(일) ~ 6.11.(수)	우리은행 전국 지정 가맹점좌 낙부가능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상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미디어 비즈니스 - 디지털 커머스
나.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다. 엔터테인먼트 - K-컬처
라. 디지털미디어융합(신상) - 온라인 과정

3. 지원자격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 전형장소: 화상면접(추후 공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gsgmc.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8.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학처
TEL. 02-2173-3282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Y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25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 전형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5.03.31.(월) ~ 4.11.(금)	2025.04.28.(월) ~ 5.09.(금)
면접전형	2025.04.26.(토) 10:00	2025.05.24.(토) 10:00
합격자 발표	2025.05.09.(금) 16:00 예정	2025.06.05.(금) 16:00 예정
등록예치금 납부	2025.05.12.(월) ~ 5.16.(금)	2025.06.09.(월) ~ 6.13.(금)

◆ 모집 전공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원자격증 취득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교육 영어교육 컴퓨터교육 스페인어교육 일본어교육 중국어교육 역사교육 일반사회교육 유아교육 수학교육 상담심리(전문상담교사 2급)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영어교육 독서논술교육 문화콘텐츠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나. 외국대학, 독학사는 졸업자에 한해 지원 가능
다.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라. 지원전공의 관련학(전공)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전공학점 30점 이상 이수자

◆ 우대사항
가. 현직교사 장학금 지급
나. 교원자격증 취득자는 학교교정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

◆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유웨이어플라이 Uwayapply.com)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 우편(등기),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 기한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입학 문의: 교육대학원 교학처 입학담당관
TEL 02-2173-2419 FAX 02-2173-3358
○ 주 소: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건물 1층 111호실
○ 찾아오는 길: 지하철 1호선 외대역(1번 출구) 걸어서 5분 거리
○ 홈페이지: gse.hufs.ac.kr
○ 이메일: hufsgse@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ky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제2의 고향이 된 중국

나는 중학교 때부터 줄곧 중국 드라마를 보며 중국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을 꿈꿨다. 대학교에 가면 교환학생으로 꼭 중국에 가겠다 다짐하며 중국어 어문화를 전공으로 선택했다. 그러던 중 2학년 2학기에 산둥대학교(山东大学)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돼 공부할 기회가 생겼다. 나는 산둥성(山东省)에 위치한 여러 산둥대학교 캠퍼스 중 위해(威海) 캠퍼스에 가게 됐다. 위해는 인천에서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

을 보며 그들의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 같은 기분이었다.

△온갖 재료를 다 넣은 화궈(火锅)를 배불리 먹고 후식으로 달콤한 아이스크림까지 먹었던 날△중국인 친구들과 같이 밥 먹고 떠들었던 날△친구들에게 갑작스런 축하를 받았던 날△햇살이 좋은 날 학교 근처 해변에서 만나들과 사진을 찍었던 날 등 돌아보니 즐거웠던 순간이 정말 많다. 특히 다함께 바

면 질문하러던 교수님들△우리를 항상 기억해 주 시던 학교 앞 단골 마라탕사(麻辣烫) 가게 사장님△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조금씩 한국어를 배워 온 중국인 친구△흔히 여행하던 나를 귀국 날까지 도와주셨던 택시 기사님 등 모두 스쳐 가는 인연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 인연 덕분에 나의 중국 교환학생 기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었다.

처음으로 해외에서 지내며 공부한 이번 경험을



고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 출발할 때 크게 걱정하진 않았다.

그러나 위해에 도착하자마자 여러 시련이 있었다. 중국 드라마에서 보던 대학교의 모습과는 다른 강의실△식기수사 상태△학식당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했고 중국의 거대한 건물들 사이에서 길을 잃기도 했다. 학교가 너무 넓어 걷기가 힘들어 전동오도바이인(전동차(电动车))을 타다가 넘어져 다친 적도 있었다. 중국의 주요 메신저인 위챗(WeChat) 계정도 정지당해 연락을 받을 수도 없고 결제가 막히던 순간엔 정말 오싹했다. 첫 달 동안은 매일 한국에 돌아가고 싶단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더니 매일 투덜대면서도 어느새 중국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중국은 오전 8시에 1교시 수업이 시작됐는데 나는 매일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수업이 있었다. 처음엔 이른 수업이 적응이 안 돼 지각할 위기가 종종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30분 앞찍 나와 다른 중국인들처럼 등굣길에 빵을 입에 물고 수업에 가는 나의 모습

닷가에서 “새해는 즐겁게(新年快乐)”를 외치며 폭죽을 터뜨리고 2025년을 맞이하던 그 순간은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5개월간의 중국 생활 중 가장 좋았던 것은 바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다. 모두 우리에게 한없이 친절했고 정을 많이 줬다. △언제나 어려운 점이 있

통해 스스로 더욱 단단해졌음을 느낀다. 나를 성장하게 해 준 이 시간에 감사하다. 그리고 어느새 제2의 고향이 된 중국을 다시 찾겠다고 다짐한다.



노연정 (중국 · 중언문 22)

브라질
 <아구아 비바>
 - 불굴의 언어를 위한 투쟁 -

‘아구아 비바(Agua Viva)’를 직역하면 ‘살아있는 물’이란 뜻이다. 책의 저자 클라리시 리스펙토르(Clarice Lispector)는 언어를 살아있는 물로 여기며 그 속에 완전히 녹아들어 문단과 행간을 자유롭게 헤엄친다. ‘아구아 비바’는 작가가 ‘당신’에게 편지를 보내며 화자가 언어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기록한 작품이다.

이 책은 ‘화자가 당신에게 들려줄 말을 쓰고 있다’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책에선 글을 쓰는 ‘나’란 화자와 이걸 전달받는 ‘당신’이 등장한다. 화자는 ‘당신’에게 현재 느끼고 있는 생생한 감각을 추상적인

언어로 전달한다. 화자는 언어가 지닌 △분위기의미△형태까지 고려하며 ‘당신’에게 현재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경험을 객관적으로 공유하고자 노력한다. 여기서 객관적 공유란 화자가 현재 느끼는 감정과 고통 없이 느낄 수 없는 생생한 사랑을 공유하는 행위다.

책의 초반부에선 화자는 자신이 이러한 방식으로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우리 둘의 진정한 마주침에 깃든 정적’을 평범한 언어로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의 소위 ‘완벽한 교감’을 위해 백락과 이해를 초월한 경험을 ‘당신’에게 전달하고자 애쓴다. 책의 중반부에선 살아있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 고통과 그것을 뒤 따르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화자는 진실된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를 완전한 어둠에 비유하며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찾아내는 과정을 ‘할렐루야(Hallelujah)’를 ‘외칠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말한다. 책의 후반부에선 죽음 속에서 삶을 위해 투쟁하는 화자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삶은 죽음과 대비되기 전까지 ‘이전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죽음에 빚대어 ‘비틀어진 선’을 포착하고 나서야 삶은 비로소 ‘다른 것’으로 느껴진다. 화자는 난해한 언어들로 삶의 비밀을 탐색하고 지금 이 순간을 ‘당신’과 교감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아구아 비바’는 이러한 교감을 위한 필사적 기록이자 불굴의 언어에 닿기 위한 투쟁이다.

리스펙토르는 마흔네 살에 집에서 화재를 겪었고 이로 인해 화상의 후유증과 죽음을 목전에 두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괴로운 경험을 치유하며 ‘아구아 비바’를 집필했다. 책 속에서 작가는 죽음과 가까워지며 현재와 현실의 중요성을 깨닫고 죽음을 통해서만 비로소 알 수 있는 삶의 가치를 찬양한다. 우리는 언어로 어디까지 타인과 교감할 수 있을까? 언어적 교감과 삶의 아름다움을 리스펙토르만의 미술적 언어로 경험해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김은희 기자 10kimeunhui@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5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5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5.04.02(수) ~ 04.16(수)	2025.04.30(수) ~ 05.14(수)
고사장 발표	04.23(수) 15:00	05.21(수) 15:00
면접전형	04.26(토) 10:00 예정	05.24(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05.08(목) 15:00	06.05(월) 15:00
등록예치금 납부	05.12(월) ~ 05.16(금)	06.09(월) ~ 06.13(금)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족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문학학과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금 학기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학과인 경우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접수방법
 가.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나.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 서류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시스템에서 작성하여 출력)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작성시스템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문 가능)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원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8) 재직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만달러 이상)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류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한국 영사의 공증서(확인) 제출 필요
 다. 선택 제출서류
 1) 자격증 : 초·중·고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가산점 부여)
 2) TOPi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지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가. 성적 우수자 3학기 졸업 가능(별도의 조기졸업심사 진행)
 나. 3가지 졸업 트랙 운영
 * 논문(24학점 이수), 연구보고서(28학점 이수), 추가학점(32학점 이수)
 다. 장학금 : 성적우수/우수외국인/동문/근로장학금 등 장학 혜택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환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여(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KFL, Hanky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국제지역 전문가 양성의 요람 국제지역대학원 2025학년도 후기 모집

1. 국제지역대학원 모집
 ◎ 석사학위과정 / 박사학위과정 /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모집 전형 일정

구분	1차 모집	2차 모집
원서작성	원서작성: 2025. 4. 1.(화) ~ 4. 10.(목)	원서작성: 2025. 5. 20.(화) ~ 5. 29.(목)
전형일	2025. 4. 26.(토)	2025. 6. 14.(토)
합격자 발표	2025. 5. 9.(금) 예정	2025. 6. 30.(월) 예정
온라인 입학설명회(예정)	2025. 3. 28.(금) 14:00 예정	
입학설명회(예정)	Webex를 통한 국제지역대학원 입학설명회 예정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온라인 입학설명회 세부 안내는 추후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인,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특징
 가. 다양한 장학금 제도
 나. 유엔평화대학 이종학위 프로그램 운영(국제학, 한국학, 중남미학, 유럽연합학과)
 다. 3+1제도 시행(선발자에 한하여 재학 중 1학기는 해외에서 학점취득)
 라. 폭넓은 다양한 지역학, 국제학 과목 개설
 마. 졸업 후 많은 동문들이 국제기구, 공공기관 국제협력실, 대사관, 국제 연구기관 등에서 국제지역 전문가로 활약 중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 Email: hufs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온라인 입학설명회 세부 안내는 추후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2.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모집
 ◎ 모집일정

학 과 (전공)	학 위
국제지역전략학과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국제지역학석사, 경제학석사

◎ 모집: 석사학위 과정(4학기)

구분	1차 모집	2차 모집
원서작성	원서작성: 2025. 4. 1.(화) ~ 4. 10.(목)	원서작성: 2025. 5. 20.(화) ~ 5. 29.(목)
전형일	2025. 4. 26.(토)	2025. 6. 14.(토)
합격자 발표	2025. 5. 9.(금) 예정	2025. 6. 30.(월) 예정
온라인 입학설명회(예정)	2025. 3. 28.(금) 14:00 예정	
입학설명회(예정)	Webex를 통한 국제지역대학원 입학설명회 예정	

*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 특징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출신 교수진 초빙
 나. KOTRA의 통상전략 및 지역통상 현안 분석을 기반으로 국제지역대학원의 고유가치인 지역학 접목
 다. 통상환경 + 실무이론 + 지역별 심화 연구를 아우르는 실무 통상 전략기 양성을 목표로(커리큘럼 방향은 추후 변경 가능)
 라. 졸업 시 학위기와 함께, 별도로 KOTRA 사장 명의의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수료증 수여
 마. KOTRA 현지 무역관 연계 단기 현장학습 추진
 바. GBC(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턴트, 민간 1급) 자격증 연계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 Email: hufs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HANKY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대학생 자치활동 참여율 저조, 학생 목소리 사라진 캠퍼스

새 학기가 시작되며 각 대학의 학생회 중 후보 부족과 낮은 투표율로 인해 정식 출범조차 하지 못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이는 최근 대학 내 학생 자치활동 참여율이 급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학내 민주주의가 위축되고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학생 자치활동 축소

는 △공동체 의식 약화△대학의 사회적 책임 약화△학생 권익 보호 취약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에 현 상황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대학생의 자치활동 참여율 현황△대학생의 자치활동 참여율 저조의 원인 및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대학생의 자치활동 참여율 현황

학생 자치 기구는 학생들의 대표자로서 직접 교내 정책을 논의하고 구성원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학생 자치활동의 참여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고대신문에 따르면 고려대학교는 지난해 11월 22일 기준 20개 단과대△독립학부△동아리연합회 중 후보자 부재로 선거가 무산된 단위가 8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지난 2023년 총학생회(이하 총학) 선거에서 투표율 24.4%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었다. 이 외에도 서울여자대학교는 지난 2023년 54대 총학 회장 후보의 미등록으로 인해 총학 회장 선거에 난항을 겪었다.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총학 역시 후보자 공석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생 자치활동의 관심도 하락은 투표율 감소 및 후보자 부재로도 이어진다. 그러나 이는 총학생회 대표자 후보 부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학생들의 전반적인 참여율 감소로 이어지며 학생회 조직의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엄은세(영어·영문 24) 영미문학문화학과 학생회장은 “학과 학생회의 경우 부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대학생 자치활동 관심도의 저하는 학생 자치활동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난다. 학교 측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며 학생 자치 기구가 단순한 행사 운영이나 홍보 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학과 학생회 부원으로 지난 학기 활동한 A 씨는 학과 학생회의 운영에 대해 “지난해 학과 학생회는 제휴 사업에만 집중된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대학생의 자치활동 참여율 저조의 원인 및 문제점

대학생들이 학생 자치활동에 무관심해진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사회적 요인을 언급할 수 있다. 많은 학생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학내 문제보단 개인적인 진로 준비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인턴십△자격증 취득과 같은 실질적인 진로 개발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며 자치활동 참여도가 뒷순위로 밀리고 있다. 실제로 A 씨는 “학과 학생회 참여를 고려했지만 대외활동 및 학업에 투자하는 것이 취업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학생회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학생회가 실질적인 학내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단 구조적 한계도 무관심의 이유 중 하나다. 학교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안이 재정 및 행정상의 이유로 거부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거듭되며 학생들은 학생회의 실질적 영향력에 회의를 느끼고 점차 자치활동 자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학생회의 협상력이 약화하며 학생들의 의견이 학내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워지고 결국 학생들의 관

심이 더욱 멀어지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실제로 B 씨는 “학생회와 학교의 협상에서 학생회의 의견이 반영되는 일이 많지 않기에 학생회 활동에 대해 무관심해졌다”고 밝혔다. 일례로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월 8일 동국대학교(이하 동국대)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교 측이 등록금을 5.49%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동국대 총학 비대위는 “등록금 인상을 통해 재정적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하기 전 등록금이 적절하게 운용됐는지 먼저 따져보아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등록금 인상이 결정되며 교내 학생 대표 기구로서 역할이 제한적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학생 자치활동의 축소는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먼저 비대위 체제의 학생회는 대표성과 운영의 한계로 인해 정식적인 학생회에 비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투표율 미달 또는 입후보자 공석으로 인해 학생회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기본적인 학생 자치 업무를 수행하고 임시 운영 기구로 비대위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비대위는 한시적인 기구로 정식 학생회와 달리 정책적 의사결정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내 정책 개편 요구나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학생회는 대학과의 협상을 통해 △등록금 동결△복지 확충△학사 운영 개선 등의 사안을 논의할 수 있지만 비대위는 공식적인 의결 기구가 아니므로 대학 측과의 협상력과 대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비대위장은 학생회장과 비교했을 때 사퇴 선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기에 사퇴와 선출이 반복되는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한계로 인해 학생 자치가 장기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한대신문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하준혁 전 한양대학교 사회대학 비대위원장은 “비대위를 운영하면서 정책의 연속성 문제와 정당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자치활동의 축소는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또한 약화할 수 있다. 학과 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와 같은 자치 기구는 학생들이 연대와 협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장으로 기능해 왔으나 이러한 활동이 축소될 시 대학은 단순한 학업 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 활동이 축소되고 학생들이 대학을 개인적인 학업을 위한 장소로만 인식하게 되면 대학 내 공동체 문화와 학내 연대 의식이 점차 사라질 위험이 있다. 실제로 작년에 입학한 C 씨는 “대학교에서 다른 학우들과 비슷한 관심사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실행에 옮기는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했으나 현실에선 수업이 끝나면 바로 귀가하는 학생들이 대다수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학생 자치활동이 약화될 시 대학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고등교육법 제28조는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 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대학의 존재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회는 학내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권 보호△인권 문제△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도 관심을 두고 연대 활동을 주도하며 위와 같은 대학의 목적을 수행하는 기능을 해왔다. 그러나 학생 자치가 약화되며 대학이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대학이 단순한 교육 기관으로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야 할 방향

학생 자치활동의 약화로 인해 대학 내 민주주의는 위태로워지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현재 학생 자치기구의 문제 중 하나인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생회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학생회의 역할을 단순한 행사 기획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협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한다. 독일 대학들의 경우 학생 자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ASTA(Allgemeiner Studierendenausschuss)라는 학생회를 운영하고 있다. ASTA는 학생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가족 및 장애 학생 지원△경제적 지원△법률 및 주거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주도하며 학생들이 학내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독일의 ASTA 시스템처럼 학생회가 정책 제안과 협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발전한다면 단순한 행사 기획을 넘어 실질적인 학내 의사 결정 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학생들의 학생회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방법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University of Massachusetts) 공과대학에서 실시된 실험에 따르면 학생회 선거 투표자 중 추천으로 상급을 받을 기회를 주었던 이메일을 받은 집단은 아무 안내를 받지 않은 집단보다 투표율이 눈에 띄게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실제로 미국 체프먼 대학교(Chapman University)의 경우 학생회는 투표를 하라에 대응하여 후보자 소개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디즈니랜드(Disneyland) 입장권을 추천으로 주는 등의 경품 전략을 사용해 학생들의 투표를 유도한 바 있다.

또한 학생회 활동을 일정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학생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존재한다. 실제로 국민대학교의 경우 교내 비교과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플러스알파(+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은 학생회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의 누적 시간에 따라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영대학 학생회장과 부회장은 40시간 그리고 학생회 간부 및 일반 회원은 20시간의 활동을 인정받아 학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학생들의 자치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대학 내 학생 자치활동이 축소되는 것은 단순한 관심 부족의 문제가 아닌 학내 민주주의의 위기를 의미한다.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학이 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선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학생들 스스로 자치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대학도 이를 지원하는 체계적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노사의 상생을 위해선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긴 셈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구체적인 산식과 기준이 없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자영업자

에게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안김과 동시에 청년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꾸준히 비판받아 온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변화△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변화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전년 대비 1.7% 인상됐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지만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란 타이틀과 함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건비가 높아진 만큼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자영업자들은 △매장 운영 시간 단축△직원 고용 규모 축소△키오스크(KIOSK) 설치 등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층은 일자리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일부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용주의 근로 시간을 늘리고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실제로 알바천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2025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변화된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해 알바 신규 고용 축소 및 중단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문제점

이처럼 최저임금의 인상은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해 기준이나 산식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에서 합의제 방식으로 결정한다. 최임위는 △공익위원△근로자△사용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37년 이래로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단 7차례뿐이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은 심의 축진 구간을 제시해야 하고 이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이러한 삼원적 구성이 사회적 합의의 도구로 기능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취약성도 존재한다. 먼저 노동계와 경영계의 상이한 요구안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전문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오늘날의 최임위는 합리적인 기준 아래 숙고와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 보단 소모적인 갈등만 매년 반복한다”며 “현행 최저임금 결정 체계는 노사 대립이 극명하고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위원회의 규모가 비례해 숙고와 합의가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 90일로 제한된 심의 기한은 시간 부족으로 인해 빈번히 합의가 무산되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현

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 생계비△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 네 가지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노사는 매년 갈등을 겪었으며 법정시한을 넘기고 나서야 공익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왔다. 이번 해 최저임금 역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최임위에서 공익위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됐다. 지난해 최임위에서 노동계는 △근로자 생계비△물가상승률△실질임금 저하를 근거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를 요구했다. 끊임없는 신경전 끝에 공익위원 측은 1만~1만 200원을 제시했으나 노동계는 아쉬움을 표했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기까지 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최저임금은 △경제 성장 기여△근로자의 생활 안정△내수 경제 활성화△노동생산성 향상△노동 시장 보호△사회 안정△소득 분배 개선△임금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흥정하듯 이뤄지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최임위 전·현직 공익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는 현재까지 최저임금 심의 구간을 설정한 후 본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이원화 구조 및 결정 체계를 구간 설정·결정으로 분리하는 개편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회에서 개편안을 도출해 내더라도 실제 제도 변화가 이뤄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자. 프랑스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인상에 따른 구매력 상실△소비자물가 상승률△정부 재량이란 세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여기서 정부 재량은 정부가 여타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통째로 제시되는 인상률에 추가로 부여하는 인상률이다.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원칙상 1년에 한 번 조정되지만 소비자물가지수(CPI)가 특정 3개월 동안 2% 이상 상승하는 경우엔 자동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1년에 최대 네 번까지 최저임금이 인상될 수도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와 지역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지방최저임금심의회(이하 지방심의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표준 제도라 불리는 일본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중앙심의회가 정한 표준 금액을 바탕으로 지방심의회가 최

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노사는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는 형식으로만 최저임금 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 해외 사례를 통해 각국이 정부 주도하에 자국의 △경제 상황△고용 구조△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기간 내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개편이 어렵다면 △근로자△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임금 지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무 개선 조성금’이란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사업장 내 가장 낮은 임금의 인상액과 이로 인해 임금이 상승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 김진관 노무사는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양극화된 노사 요구간의 차이가 일정 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금융권의 지원도 필요하다. 실제로 금융당국과 20개 은행들은 지난해 12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며 경기 부진으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3년간 매년 7000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약 10만 명이 연간 4360억 원의 이자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권은 이미 연체를 했거나 연체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사업자 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 상환 상품으로 전환해 주며 평균 251%의 금리 감면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3월부터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사업 정리 후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약 2000억 원을 출연해 소상공인 상생보증·대출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이 오히려 그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 여러 방면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의 안전망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박지연 기자 10jiyeon@hufs.ac.kr

www.사사한줄토익.com

정치 대학가에 잇따른 태극기, ‘탄핵 무효’ 주장하는 탄핵 반대 집회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을 촉구하고 계엄을 규탄하는 시국 선언이 대학가를 뒤덮었다. 한편 지난달 연세대를 시작으로 △경북대△고려대△서울대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시국 선언이 연이었다.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대학생들은 “부정선거 의혹은 일부이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 계엄이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 및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며 국민통합과 포퓰리즘(Populism) 국가로의 전환을 막기 위해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고려대 캠퍼스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함께 열려 유튜버와 외부 단체까지 대학가를 점령했다. 특히 캠퍼스 내엔 재학생이 아닌 외부인들이 몰려들면서 몸싸움이 발생했다.

사회 안전한 학교 만들기, 교사 정신질환 관리만 문제인가

교사노조연맹이 지난달 17~18일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조합원 8,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7.1%가 이른바 ‘하늘이법’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위중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맞춰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해당 법안이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드러내기 어려워 오히려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다수의 응답자는 최근 발생한 초등생 피살 사건의 본질적 문제를 ‘폭력적인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대해 긴급 분리 조치를 할 수 없는 현 제도의 문제’라고 보고 교사의 정신질환보단 폭력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을 △분리△조치△진료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제 서울 외 거주자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 ‘역대 최고’

지난달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외 거주자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21.5%로 2006년 관련 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외 거주자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2006년 17.8%를 기록한 후 10년간 17~18%대를 유지하다가 2017년 이후 19.9%로 증가했다. 이후 2022년 18.7%로 다소 감소했으나 2023년 20.9%로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로 아파트값이 급락하고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 기피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최근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2023년 특례보증자리론 및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을 비롯한 정책 대출을 활용한 ‘내 집 마련’ 수요가 증가한 까닭으로 보인다. 서울 외 거주자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동구로 27.3%를 기록했다.

국제 트럼프 발 관세 전쟁, 세계는 ‘긴장’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신규 관세를 통해 세수가 확대되면 미국의 소득세를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간 상호 관세와 자동차 및 반도체 등의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를 언급하며 한 국가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만으로도 최소 600억 달러(약 86조 원)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을 거론하며 이를 우회해 무관세로 수출하는 기업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캐나다를 향해선 △가스△목재△석유△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BRICs(△남아프리카공화국△러시아△브라질△인도△중국)국가들에 대해 ‘달라 파괴’를 거론한 나라이면 1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에 대한 소유권까지 주장하며 국제 사회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선

중국 신생기업이 출시한 인공지능 모델 '딥시크(DeepSeek)'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딥시크는 사용자의 대화나 입력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점차 성능을 향상하는 인공지능 모델이다. 기본 검색 기능부터 복잡한 데이터 처리까지 수행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탑재했으나 일부 국가와 기관에선 보안을 이유로 딥시크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특히 전

문가들은 이 모델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던 점에서 보안이 취약하다고 경고한다. 지난 2월 한국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국방부△금융기관△외교부가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 사례가 있다. 딥시크를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 박준형 우리 학교 Language & AI 융합학부 교수와 함께 알아보자.

박준형 우리 학교 Language & AI 융합학부 교수

Q1. 딥시크의 핵심 기술은 무엇이며 기존 인공지능 모델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딥시크의 핵심은 우리가 흔히 *LLM으로 부르는 인공지능 모델을 효율적으로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ChatGPT(OpenAI) △Gemini(Google) △Grok(xAI) 등 기존 LLM들은 한 번의 학습에 수천억 원 수준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지만 딥시크는 인공지능 학계에 알려진 다양한 효율적 학습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이 비용을 수십억 원 수준까지 낮추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학습 과정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기존에 베일에 가려졌던 LLM의 성공적 학습 방법을 학계 및 산업계에 공유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Q1-1. 딥시크의 데이터 수집 방식은 기존 인공지능 모델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제기된 이유는 딥시크가 서비스 제공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가 어떻게 암호화돼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투명한 공개가 부족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더불어 목적 외 용도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데이터 서버의 보안성 역시 허술한 것으로 보고돼 사용자가 민감정보 또는 기밀정보를 입력할 경우 이것이 외부 공격자에게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Q2-1. 딥시크가 실제로 과도한 데이터를 수집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나요?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가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 리듬(Rhythm)과 패턴(Pattern)을 수집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데이터가 딥시크에서 제공하는 대화 및 지능 서비스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명백히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로써 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없다면 합부로 수집해선 안 됩니다.

Q3. 최근 딥시크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 보안 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딥시크의 주요 보안 위협 요소는 무엇이며 이러한 위협이 실제로 어떤 피해를 초래할 수 있나요?

딥시크의 보안 취약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긴 어렵지만 딥시크가 데이터 탈취에 취약한 것으로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LLM 서비스는 사용자와의 대화 내역을 저장하고 이를 모델 개선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LLM에 입력한 주요 개인정보들이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 또는 모델 그 자체에 저장되며 데이터 유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보안 취약점을 통해 데이터 서버를 해킹(Hacking)하면 사용자가 대화 과정에서 입력한 개인정보나 기밀정보를 직접 탈취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LLM의 학습 데이터를 기억하려는 성질 때문에 LLM과의 대화 중에 LLM이 제삼자의 개

인정보를 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모두 실제로 CharGPT에서 일어났던 유출 사고며 딥시크에도 같은 종류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3-1. 딥시크는 이러한 보안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다른 인공지능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세상에 완벽히 안전한 시스템은 없기에 딥시크 또한 보안성 확보에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런 노력을 다른 기업들처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지만 이런 점에선 딥시크가 아직 미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4. 유럽연합(EU)의 **GDPR과 같은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인공지능 모델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현재 대부분의 인공지능 모델은 클라우드(Cloud)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계산 장비를 갖춘 서버를 구축하고 사용자의 입력 데이터를 그 서버로 송신해 처리한 후 다시 수신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개인 데이터가 사용자의 기기 밖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습니다.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현재 클라우드 방식의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에 제동을 걸 것이며 ***온디바이스(On-Device) 형태로 사용자의 기기 내부에서 구동할 수 있는 초소형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로의 전환을 점진적으로 유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Q5.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기술 발전에 어떤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딥시크 사용 제한이 국내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전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만 현존하는 인공지능 모델 성능의 원천은 90% 이상 데이터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인공지능 모델 자체의 성능을 떨어뜨리거나 향후 인공지능 모델의 개인화에 있어서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책은 안전성과 고성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술로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저를 비롯한 많은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내의 인공지능 산업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6. 국내에서 인공지능 모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현행 규제 체계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것이 지닌 한계는 무엇일까요?

현행 국내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통해 작동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공지능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미흡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LLM 모델의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 침해와 같은 논란이 있었으며 인공지능은 앞서 답변과 같이 그 자체로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크게 논란이 됐던 것과 같아요. 이미 미국과 EU에선 인공지능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수년 전부터 준비해 발표했으며 우리나라 또한 준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Q6-1. 앞선 질문에서 언급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현실적인 개선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미국과 EU에서 준비 중인 인공지능 관련 법률의 내용을 검토해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해 인공지능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Q7. 딥시크가 국제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보안 및 규제 문제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지 명백히 공개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현존하는 인공지능 관련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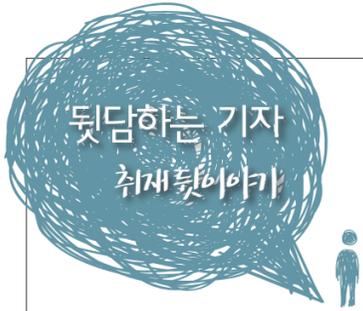
Q8. 정부와 기업이 인공지능 모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정책적 방안이 무엇인가요?

인공지능 개발 과정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다양한 기술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단순히 성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과 관련된 최신 기술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적 방안으로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법 제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통해 안전한 기술 확산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LLM(Large Language Model): 거대 언어모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으로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강력한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온디바이스(On-Device) 인공지능: 서버나 클라우드에 연결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 자체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불안을 마주하는 방법

나에게 불안은 잘하고 싶단 마음에서 비롯된 작은 의심이다. 어떤 일이든 완벽하게 해내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과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란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늘 불안감에 사로잡히곤 한다. 특히 글을 쓸 때 불안은 더욱 커진다.

어릴 적 나는 남에게 편지를 쓰거나 미시여구로 가득한 문장을 만들어 선물하는 걸 좋아했다. 글을 쓰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하는 과정이 즐거웠고 한 문장 안에 나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던 사실이 기뻐다. 하지만 내가 공들여 쓴 문장이 타인에 의해 가볍게 평가되고 때론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던 걸 깨달은 순간부터 글쓰기가 두려워졌다. 말은 흘러가 버릴 수 있지만 글은 기록으로 남는 단점이 나를 더욱 위축시켰다. 내가 남긴 흔적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남에게 평가당하며 나를 움켜잡는 것만 같았다. 그런 생각이 들수록 글을 쓸 때마다 스스로를 겁쟁이로 여기고 자아연설하며 떠 오르던 단어들도 신중하게 골라야 할 대상으로 변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글을 쓰는 일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았다. 그 두려움은 친구에게 건네는 짧은 카드 한 장조차 망설이게 했고 편지는 점점 쓰지 않게 됐다. 그렇게 간단한 글도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과제처럼 긴 글을 작성해야 할 때 더욱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과제는 결론적으로 누군가의 평가를 받기 위해 쓰는 글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점수가 매겨지고 판단될 것이라는 사실이 나를 주저하게 했다. 잘 써야 한단 부담감은 문장을 막히게 했고 이는 글을 완성 시키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했다. 그래서 글 쓰기 과제가 있는 날이면 하루 종일 과제만 붙잡고 스트레스가 쌓여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안과 스트레스에 짓눌리지만 하면서 점차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내가 답답하다고 느껴졌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 본 결과 최선의 방법은 글을 많이 쓰는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막연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나는 외대학보에 지원했다. 꾸준히 글을 써야 하는 학보 생활을 통해 경험을 쌓다 보면 언젠가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도 희미해지지 않을까 기대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합격 소식을 기다렸고 마침내 합격 소식을 접한 순간 기대감과 동시에 긴장감이 밀려왔다.

그러나 막상 수습기로서 방송 교육을 받다 보니 기대보다 걱정이 앞섰다. 글쓰기에 대해 기본적으로 있었던 불안감과 함께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글쓰기 방식을 익혀야 한다는 부담이 크게 느껴졌다. 하지만 교육을 거듭할수록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교육마다 부여된 과제들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글을 쓰는 과정에 여러 번 막히고 부족한 점을 스스로 깨달으면서 고통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만큼 글을 다듬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내 글쓰기 실력도 점차 향상되고 있던 걸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꼼꼼하고 친절한 피드백 덕분에 외대학보의 서술 방식에 적응해 갈 수 있었고 기사를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앞으로의 학보 생활이 걱정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분명 배울 것도 많고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지만 나는 불안과 함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고자 한다. 불안을 마주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멈추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재우 기자

[책 '너무 시끄러운 고독'을 읽고] 격변하는 세상과 인간의 삶

격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발버둥 치며 살아간다. 이 책의 주인공 한타(Hantya)의 삶도 그러했다. 보후밀 흐라발(Bohumil Hrabal)의 '너무 시끄러운 고독'은 그의 정수가 담긴 역작으로 평가 받는다. 출간 당시 체코를 점령한 소련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담았던 이유로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다. 나이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과 노동자의 삶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고민해 보게 한다.

주인공 한타는 삼십오 년째 책과 페지를 압축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의 지하실엔 페지 더미와 맥주가 가득하다. 한타는 압축공이지만 책을 손수 압축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교양을 쌓게 됐다. 일하는 동안 페지 더미 속에서 반짝이는 책을 찾고 온전히 음미한다. 그의 뇌는 압축기가 만들어놓은 수많은 사고로 형성돼 있다.

한타는 이 삶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지만 거대한 공장과 자동 압축기의 등장은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고 만다. 기계를 이용해 엄청난 양의 책을 단순히 압축해 버리는 공장 노동자들을 본 한타는 절망에 빠진다. 종이의 감촉을 더 잘 느끼기 위해 맨손으로 책을 음미해 온 그는 장갑을 낀 노동자들을 보며 모욕감을 느꼈다. 이어 거대한 압축기가 자신의 직업과 시대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직감한다. 더구나 일하는 동안 맥주를 마시는 한타와 다르게 공장 노동자들은 우유를 마신다. 똑같은 유니폼(Uniform)을 입고 똑같은 우유를 마시는 그들의 모습은 현대 사회의 획일화를 보여준다.

지하실로 돌아온 한타는 더 이상 책을 펼쳐보지 않는다. 자신보다

스무 배나 빠르게 책을 압축해 내는 기계와 공장 노동자들을 떠올리니 책을 펼쳐볼 수가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계가 한타를 완전히 대체하면서 소장으로부터 앞으로 백지 꾸리는 일을 하란 통보를 받는다. 새하얀 백지는 마치 더 이상 책을 펼쳐보지 않게 된 한타와 기계처럼 일하는 공장 노동자를 상징하는 듯하다. 압축공으로서의 삶이 끝났다고 느낀 한타는 절망에 빠지고 더는 자신의 세계에 머물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결국 신체의 일부와도 같았던 압축기와 한 몸이 되고 만다.

각장의 첫 문장은 "삼십오 년째 나는 페지 더미 속에서 일하고 있다"를 반복한다. 한타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자신의 실체를 자각하려 했다. 맥주를 마시며 문장을 음미하고 책을 삼키는 한타의 모습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우린 유니폼을 입고 우유를 마시며 책을 펼쳐보지도 않고 기계로 압축해 버리는 공장 노동자와 같지 않은가? 한타의 맥주는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고 책은 깊은 생각에 빠져들게 한다. 빠른 속도와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현대 사회에서 맥주는 불필요한 생각을 자극하며 책은 일의 효율을 저하할 뿐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살아간다. 기술과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고 있는가? 기술의 발전이 더 나은 세상을 가져다줄 것이라 믿음 아래 우리 스스로 기계가 되고 있던 않은가? 한타가 느꼈던 고독과 절망은 곧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

박지연 기자 10jyeon@hufs.ac.kr

[영화 '원더풀 라이프'를 보고]

22년 인생 중 가장 행복했던 한 순간을 선택하시오

이번에도 어김없이 넷플릭스(Netflix)에 내가 좋아하는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是枝裕和)'를 검색한 후 그의 영화 중 하나를 선택했다. 늘 그렇듯 서정적인 가족 영화일 거라 예상하며 미리 눈물을 흘릴 준비도 했다. 그러나 그의 작품 중 하나인 '원더풀 라이프(Wonderful Life)'는 예상과 달리 따뜻한 가족애를 그린 영화가 아닌 오히려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만든 영화였다. 이 영화는 내게 한가지 질문을 던졌다. '22년 동안 살아오며 가장 행복했던 한 순간을 선택하라. 그 기억 하나만을 품고 천국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란 질문이었다. 하지만 단 한 순간만을 선택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분노하거나 슬펐던 기억은 또렷했지만 정작 행복했던 순간들은 선택하기보다 흐릿하고 넓게 퍼져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나는 어떤 기억을 품고 떠날까? 행복했던 추억이야 많지만 하나를 고르면 나머지는 삭제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가족과의 기억 중 하나를 선택하고 싶었지만 무엇 하나 지우고 싶은 순간이 없었기에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결국 나는 가족들과 함께했던 첫 유럽 여행을 선택하기로 했다. 현재 각자의 바쁜 일상 속에서 다시 명이 함께 긴 휴가를 떠나는 것이 어려워져 그때의 추억들이 더욱 그림고 아쉬워진다. 오롯이 우리끼리 떠난 여행이었고 가족들과 마주 앉아 진득하게 이야기를 하고 웃을 수 있었던 순간만이 있던 추억이었다. 그 여행 속에서 나는 사랑받고 있음을 온전히 느꼈고 그만큼 따뜻한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다. 부모님 곁에서 자고 싶어 사소한 다름을 벌인 것과 관광을 하지 않고 잠만 자 혼났던 기억들이 지금은 그리운 장면이 됐다. 어쩌면 그 장면들은 시간이 흐르며 미화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설명 그렇다 해도 그때의 작은 다들조차 따뜻한 추억이 때버린 지금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주저 없이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가족의 추억은 특별할 것 없이 쌓여가지만 결국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장면이 되었기 때문이다.

죽음의 모습은 곧 삶의 모습에서 비롯된다. 결국 삶을 대하는 태도

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다. 영화는 죽음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다시 삶을 비춘다. '원더풀 라이프' 속 천국은 단순히 선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다. 오직 행복한 기억을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다. 영화 속 사람들은 스디즈나랜드에서 놀이기구를 탔던 기억△생후 5개월 되던 가을 오후에 알몸으로 햇볕을 쬐던 추억△전쟁 속 적군에게 밥을 얻어먹었던 기억 등을 선택한다. 인간은 풍요 속에서도 불행은 느끼고 반대로 고난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삶의 행복과 불행은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결국 어떻게 살아갈지 그에 따라 삶은 달라지며 그 끝에 마주하는 죽음의 얼굴 또한 결정된다.

아름다운 추억은 기억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우린 과거를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미화하고 윤색한다. 때론 사실보다 더 아름답고 극적으로 덧칠한다. 그렇게 추억은 원래보다 더 빛나고 때론 실제와는 다른 모습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아름다운 것은 진짜일까 아니면 가짜일까? 진짜든 가짜든 우리 결국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대로 살아간다. 지나간 순간이 아무리 덧칠된 것이라 해도 그 기억이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짜 같은 가짜가 아닐까? 어쩌면 아름다움은 사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 추억은 하나의 영화고 우리는 그의 기억을 편집하는 영화감독일지도 모르겠다. 마음에 들지 않는 장면은 편집해 삭제하고 인생의 중요한 추억은 명장면으로 남긴다. 어떤 순간을 남기지 어떤 장면을 더 아름답게 빛낼지는 온전히 우리의 몫이다. 이에 나는 앞으로의 내 인생이 지나온 날들처럼 더 많은 따뜻한 장면들로 채워질지 바란다.

최소윤 기자 09soyoon@hufs.ac.kr



외대학보 독자위원회를 모집합니다

2025년도 1학기 동안 외대학보를 비평해주실 독자위원을 모집합니다.

- ◆활동내역 2025년 1학기 외대학보 1100~1105호 비평 후 비평문 작성 (총 5회, 개인 당 1~2회)
- ◆모집단위 서울캠퍼스 3명/ 글로벌캠퍼스 3명
- ◆모집기간 3월 1일(토)까지
- ◆지원방법 문자메시지 혹은 외대학보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름, 캠퍼스, 학과, 학번 제출
- ◆지원자격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학교 구성원
- ◆활동혜택 - 비평문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독자위원회 토론 시 경비 지원
- ◆문의 한영빈 기자 010-4086-6573

독자위원이 써 주신 비평문은 매 호 외대학보에 실립니다. 학보도 꼼꼼히 읽고 사람들과 만나 토론하고 싶은 지식인을 환영합니다.



누구에게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응원하며

국·부장 고정칼럼

끝날 것 같지 않던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푸른 새싹이 돌아오는 봄이 찾아왔다. 계절의 변화를 알아차리더라도 한 듯 학교도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새로운 신입생들이 신선한 바람으로써 우리 학교에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학교와 마찬가지로 외대학보에도 새로운 신입 기자들이 선발돼 신선하고 싱그러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나 또한 부장으로서 △신입 기자들△ 기존의 차장들△편집장과 함께 외대학보의 새로운 변화를 살려 좋은 기사를 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1100호에선 어떤 기사가 있는지 살펴보자.

전반적으로 이번 호의 기사들은 방학 중 학교에 일어났던 일들과 사회적으로 주목했던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물론 12면이라는 제한된 분량 안에 약 3개월간 일어난 다양한 일들을 모두 담는 것은 불가능하나 우리학교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바라볼 주제를 선정 및 기사화했다.

먼저 4면에선 우리학교 등록금 인상을 다루고 있다. 올해엔 전국 4년제 대학 190개교 중 131개교(68.9%)가 등록금을 인상하며 사실상 대부분의 대학교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십수 년간 유지된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로 인한 각 대학교의 심화된 재정난이 등록금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배경 속 우리학교의 등록금 인상 과정엔 여러 문제가 있었다. 국가 장학금 II 유형을 더 이상 지원받지 못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학생들이 발생했으며 학교 측과 학생 간의 원활한 소통도 부족했다. 이 외에도 여전히 범전입금 비율이 낮은 상태임을 감안할 때 등록금 인상으로 재정의 등록

금 의존율이 상승할 것이란 우려도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와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인상된 등록금이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면에선 우리학교 제휴 사업의 실효성에 집중한다. 우리학교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는 △교통수단△병원△서점△식당△카페△학원과 같은 다양한 업체와 제휴를 맺고 있지만 △홍보 부족△적은 혜택△제휴 업체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수요를 적극적 및 주기적으로 수렴하고 SNS 및 홍보 행사 등을 통해 제휴 사업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8면에선 최저임금 인상을 다룬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여파를 소개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구체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기보단 법정시한을 넘긴 후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정되며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기사에선 정부가 참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타 국가의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학교 및 사회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알 수 없으나 이를 빠르게 파악한 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기자들이 있기에 외대학보에서의 마지막 학기가 기대된다. 외대학보를 애정해주시는 모든 독자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박진하 부장 08jinha@hufs.ac.kr



비판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적지 않게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서로에 대한 손가락질이 한창이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유년기 때부터 끊임없이 들어온 일종의 규범이지만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인류에게 아직 요원한 일인 것 같다.

과거부터 개인의 '성장' 방법을 두고 현자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인 바 있으나 결국 누구의 이론도 우위를 점하지 못한채 오늘날까지 흘러왔다. 그들의 진리 탐구적 사고 과정의 발발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가 '성장'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감히 개인적인 의견을 밝혀보자면 성장은 곧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장은 비판을 먹고 자란다. 스스로의 단점을 잘 깨우치고 뉘우치는 특별한 인물을 가정하지 않는 한 대다수는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한다. 이때의 실제 모습이란 본인이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외양뿐만 아니라 보이고 싶지 않은 내면을 포함한다. △술을 먹으면 난폭해지는 사람△ 앞에서는 모두를 이해해주는 척 하지만 뒤에서는 험담을 서슴치 않는 사람△ 온정을 베푸는 듯 보이지만 정작 자신의 이익은 한치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추한 모습을 가리기 위해 착용한 가면은 언젠가 그 수명을 다하기 마련이다. 완벽한 연기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임의의 시점에 임의의 개인에 의해 본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자신의 추함을 완벽하게 가려주던 가면이 깨지고 주변 사람들이 그의 실체를 알기 시작할 때 비판이라는 화살이 날아오기 시작한다. 여기서 개인의 선택지는 단 두 가지이다. 날아오는 화살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아니면 이를 회피하는 것이다. 회피하는 자를 생각해보자. 그는 비판을 받지 않았지만 본인의 약점을 평생 노출한 채로 살아가며 고통을 모르기에 이를 고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그저 계속 회피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화살을 온몸으로 견뎌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상처가 난다. 그러나 상처는 아무는 것이다. 회복 과정에서 이전보다 단단해진 부위는 이제 자신의 약점이 아니기에 가면으로 보호할 필요조차 없다. 당당해지는 것이다. 당장의 고통은 피했으나 평생 가면을 쓰고 도망다니는 사람보다 겸허히 비판의 화살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성장'이란 이득을 얻는다.

결국 개인의 성장을 위해 비판을 수용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인 것이다. 자신을 향한 비판을 수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연륜과 경험에 상관없이 하나의 개체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은 고대부터 이어온 인간의 본모습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한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어질 때 우린 최상의 상태에 도달하지는 못하더라도 그에 근접해진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어지러운 세상 속에 나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진다. 당신들은 스스로 비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당신들은 스스로 성장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승원(외대학보 편집장)



부엉이 메신저



잘 다녀왔어? 기다리고 있었어 :)

-무나-

3월에도 눈이 올까?

-익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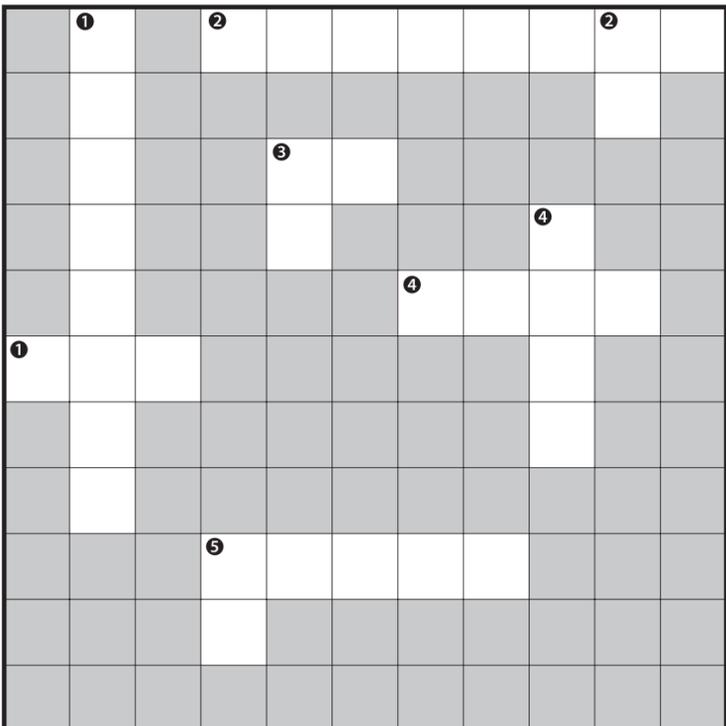
-익명-

아 피곤해

-익명-



십자말풀이



가로

1.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예브리타임(이하 예타)에서 지난달 졸업식 기간에 진행된 ○○○ 대어 사업을 두고 파장이 일었다. (3면)
2. 이번 행사는 우리학교 투르키에 · ○○○○○○○○의 발전 가능성과 비전(Vision)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2면)
3. 여기서 정부 재량은 정부가 여타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통계상으로 제시되는 인상률에 추가로 부여하는 인상률이다. (8면)
4.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금융권의 지원도 필요하다. (8면)
5. 특히 실전 모의 면접에선 학생들이 현직 ○○○○○들로부터 직접 피드백을 받아 취업 준비 과정에서 자신의 강점과 보완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2면)

세로

1. 총학생회에선 ○○○○○○○(이하 등심위가 열리는 서울캠퍼시(이하 설캠) 본관 앞에서 피켓팅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반대했으나 결국 등록금 5%가 인상되었다. (4면)
2.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 활동이 축소되고 학생들이 대학을 개인적인 ○○을 위한 장소 로만 인식하게 되면 대학 내 공동체 문화와 학내 연대 의식이 점차 사라질 위험이 있는 것이다. (7면)
3. 우리학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은 학생들에게 할인과 편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사업체와 ○○를 맺고 있다. (5면)
4. 이미 미국과 EU에선 ○○○○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수년 전부터 준비해 발표했으며 우리나라 또한 준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9면)
5. 기술과 기계가 ○○을 대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10면)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춘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난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8seungwon@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지성욱
 편집장 이승원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헌법의 연구자

전학선

우리학교 법전문원 교수를 만나다

전학선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문원) 교수(이하 전 교수)는 1991년에 우리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우리학교 대학원을 거쳐 파리 11 대학(Universit  Paris-Sud)에서 헌법 및 헌법소송법 분야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소 재판연구원으로 일했으며 광운대학교 및 단국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후 현재는 우리학교 법전문원에서 후학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프랑스 헌법 및 제도에 대한 다양한 저서 및 논문을 발표했으며 유럽헌법학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우리나라 헌법의 발전을 위해 노력 중인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Q1. 우리학교 법학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던 때 사회 과목에 여러 과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학이 포함돼 있었고 공부에 흥미를 느꼈죠. 법조인의 꿈을 꾸진 않았지만 법학 분야를 계속 공부해 보고 싶어 우리학교 법학과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Q2. 우리학교 재학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제가 학교에 다니던 1980년대 중반 민주화 시절엔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듣기 어려웠고 시험도 제대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학점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도서관에서 틈틈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켜 생각해 보면 대체로 성실한 편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공부를 마치고 친구들과 학교 근처에서 놀기도 했습니다.

Q3. 재학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지금의 법전문원도 그렇지만 과거 우리학교 법과대학 안엔 다양한 학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중앙동아리 활동은 하지 않고 법과대학 안에 있는 공법학회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학회 회원들과 함께 공부했고 당시 지도 교수님이셨던 이강혁 교수님이 아이 교수님이 가끔 저녁을 사주시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 교수님과 함께 등산도 다녔던 기억도 납니다. 이 외에도 제가 대학원생이었던 때 공법학회 100회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외부 인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고자 당시 평화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초청 인사를 한 번 부탁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변호사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 노 전 대통령이 우리학교에 강연자로 찾아왔습니다. 대학원 강의실이 꽉 찰 정도로 많은 우리학교 학생들이 몰렸던 기억과 노 전 대통령과 다 같이 중국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Q4. 파리 11 대학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우리나라 법학엔 독일법이 많이 소개돼 있어 많은 학생들이 독일로 유학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엔 이 교수님의 추천으로 프랑스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근대 국가의 탄생이 시작된 곳이고 법학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이므로 파리 11 대학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행정법 중 헌법 소송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했고 그 외에도 기본권 파트 및 권력 구조 등을 공부했습니다.

Q5. 파리 11 대학 재학 시절 겪으셨던 고충이 있나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언어였죠. 이 교수님께 프랑스 유학을 추천 받은 후 수락은 했지만 저는 불어를 전혀 몰랐기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후 대학원에 들어가 불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한 후 본격적으로 유학길에 올랐지만 그래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만약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불어 강의를 들으면 어느 정도 해석이 될 테지만 당시엔 우리나라에 전혀 소개가 안 된 생소한 내용들이라 더욱 해석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당시 결혼하고 아이가 있는 상태로 다 같이 프랑스에 갔고 그곳에서 5년 2개월

정도 생활했기 때문에 많은 고충이 있었죠.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데 공부를 병행하려니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Q6. 헌법재판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는지 궁금합니다.

1998년 말부터 2003년 2월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엔 △검사△박사학위 소지자△변호사△판사 등의 다양한 법조계 인원이 모여서 일하곤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특정 사건을 맡으면 해외 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재판관들은 해당 보고서를 참고하며 회의를 통해 선고가 이뤄집니다.

Q6-1.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나요?

1980년 전두환 정권 시절 시작된 이른바 '과의 금지법'은 헌법재판소가 2000년도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때 이 과정에 참여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해당 법안은 지나친 사교육 과열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고 이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사교육이 금지됐습니다. 원론적으로 '과의 금지법'은 위헌이었고 재판관 대부분이 이를 동의했으나 일부 재판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엔 저도 무조건 위헌이라고 생각했으나 현재 사교육 열풍이 극에 달한 사회를 바라보니 일부 재판관들의 합헌 결정이 이젠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 외에도 국가 유공자 취업 가산점 제도 등의 판결에 참여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Q7. 프랑스 헌법 및 제도에 대해 다양한 저서와 논문을 발표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 및 제도와와의 차이점과 개선점이 궁금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엔 이원집정부제 혹은 반대통령제로 불리는 체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7년 임기를 수행하며 의회는 내각을 구성합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면 대통령은 외교 및 국방 분야에 집중할 수 있고 의회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즉각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던 점입니다.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혼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죠.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상식적인지'의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다수라고 힘으로 밀어줘서도 안 되며 반드시 소수자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물론 프랑스도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대체로 소수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상식적인' 정치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권이 민중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제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대립과 갈등만 있고 대화가 없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Q8. 최근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계시는 분야가 궁금합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탄핵 정국이다 보니

와 관련된 헌법 재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 특정 정당의 입장과 논리를 배제한 공정한 헌법 재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국회 및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혹은 국가 권력 구조 등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Q9. 앞으로의 계획 및 목표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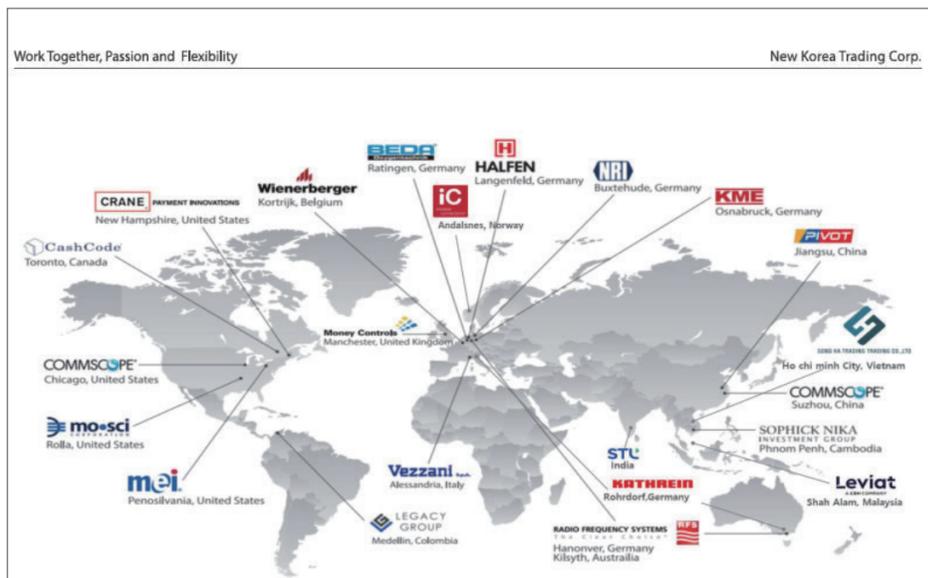
더 이상의 새로운 연구는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기에 지금까지 해온 수많은 연구를 잘 정리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입니다. 180편 정도 논문과 많은 책들을 작성했는데 이를 후배들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법의 정통 이론을 공부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1~2년 공부한다고 되는 내용이 아니기에 시간을 들여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올해 1년간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유익한 학회가 되도록 무사히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10. 마지막으로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2학년 여름방학 때 앞으로 어떤 분야로 나갈지 큰 방향은 잡길 추천합니다. △고시△공기업△대학원△사기업 등 어떤 분야든 2학년 여름방학엔 그 방향을 잡아놓아 졸업까지 남은 2년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그래야 안정적으로 진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전문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국가 리더 융합 전공을 추천합니다. 강의를 들으며 법학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전문원 입학 시 유리한 점도 있기 때문이죠. 고등학교 다닐 때 자신이 하기 싫은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전체적인 성적을 높이는 것이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는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대학에선 자신이 싫어하는 것 대신 좋아하는 과목을 최대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자 노력하고 찾은 후엔 열심히 매진했다면 좋겠습니다.

박진하 기자 08jinha@hufs.ac.kr



<p>CNKT New Korea Trading Corp. Since 1976 www.nkt.co.kr</p> <p>Steel Making Industry</p>	<p>CSK CSK Networking Co., Ltd. Since 2004 www.cskworld.com</p> <p>RF System Support</p>	<p>CRK Member of Chih Group Since 2012 www.crkeng.com</p> <p>Payment Solutions Raw Materials</p>	<p>MSK Mo-sci Korea Corp. Since 2016 www.mo-sci.co.kr</p> <p>Specialty Glass Bioactive Glass</p>	<p>JINGA Since 2016 www.jinga.kr</p> <p>Building Material Solutions</p>
---	--	--	--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속기업이 되겠습니다.